

Q 검색

현대불교

f

[홈](#) > [기획](#) > [기획특집](#) > [상월결사](#)

삼보사찰 순례, 문화와 더불어 중생과 호흡하다

송지희 기자 | 입력 2021.10.03 12:21 수정 2021.10.13 15:41 댓글 1



10월 3일 오전 19본사 화엄사 당도해
전날 숙영지 사성암서 새벽 3시 출발
밤에는 습기와 추위·낮엔 가을벌·더위
쉽지않은 여건서 묵묵히 발걸음 지속
지나는 사찰마다 '문화행사'로 한마음
고통받는 국민에 희망 전하는 법석돼



최신뉴스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19. 스미소나리
보살도> ②



[모정불심] 19. 효석 스님의 어머니



[현불논단] 가을의 문턱에서...



[병상포교일기] 초발심시 변성정각



[사실] 불교계 '직지'를 방치할건가

인기뉴스

- 1 "불과 두 세달 명상만으로도 뇌 바꿀 수"
- 2 最古 금속활자에 묻힌 '직지' 성보 가치
- 3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순례 가을 걷다
- 4 [삼보사찰 천리순례] 상월결사 순례단, 치 되새기다

지난 10월 1일 승보종찰 송광사(주지 자공)에서 입재한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문화와 더불어 중생과 호응하며 이어지고 있다. 순례 3일차인 10월 3일,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에 당도한 순례대중은 느리지만 묵묵한 발걸음으로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극복을 염원하는 마음을 차곡차곡 모아나갔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8개 순례조를 중심으로 지원단까지 150여명으로 구성됐다. 순례단은 새벽 세시 경, 철쭉 같은 어둠을 도반으로 순례를 시작해 새벽 짙은 안개를 뚫고 한결음한걸음 나아간다. 길에서 휴식을 취하고 길에서 공양을 하며, 지나는 사찰 곳곳에서 불자와 지역민들을 만나 희망을 전하고 있다.



밤에도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1인 텐트에서 숙영하며 내내 새벽 이슬과 추위에 몸을 내맡긴 채 하루하루 이어지는 순례다. 낮에는 뜨거운 가을 햇볕이, 밤에는 습기가 순례대중들을 극한으로 몰아붙이지만 묵묵히 발걸음은 지속된다.

이번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거쳐가는 지역 곳곳에서 지역대중, 그리고 문화와 함께 한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하루 전날인 10월 2일 사성암 아래 주차장 숙영지에서는 '길 위에서 길을 찾다' 공연이 진행됐다. 20분 남짓 짧은 공연이었지만 순례대중 외에도 지역 주민들과 사성암을 찾은 관광객들이 함께하며 소박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공연이 끝난 후 주차장 내 텐트를 치고 숙영한 대중들은 10월 3일 새벽 2시 30분 잠에서 깨어 순례를 시작했다. 3시경 간단한 입재식으로 하루일정을 점검하고 다시 길을 나선다. 하루 25km, 차로 이동하면 30분으로 충분한 거리지만, 묵언 속 한결음한 걸음으로 나아가는 순례단에게는 6~7시간 가량 소요되는 긴 코스다.

5 달콤한 몰트향 속에 깊은 산운이 담겨

studio GONG

[현대불교NEWS] 상월결사



[영상] 상월결사 우중행선, 걸음마다 환희

당신이 좋아할 만한 이슈

해인사가 “봉이 김선달?” 정청

새벽 3시 숙영지를 나선 순례단이 구례 화엄사에 당도한 시간은 오전 10시경. 주지 덕문 스님이 일주문에서 순례단을 마중했다. 일주문을 지나 1km가량 이어진 순례길에는 화엄사 대중들이 나와 박수로 이들의 원력과 노고를 격려했다.



화엄사는 순례대중의 원력과 함께하는 의미에서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는 화엄문화축제의 올해 주제를 '화엄, 길 위에 서다'로 정했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코로나 여파로 움츠러든 국민들에게, 올해 역시 아름다운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리는 법석으로 마련됐다. 지난 9월 29일 10여년의 보수로 재단장을 끝낸 사자자삼층석탑(국보 제35호)의 첫 대중참배도 순례단의 몫이다.





화엄사 조실 명선 대종사는 화엄사 대중을 대표해 순례단을 환영했다. 명선 대종사는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한국불교 역사적 전통을 잇는 순례, 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하는 순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치유하고 화합을 발원하는 순례”라며 “의미있는 행보를 하고 있는 삼보사찰 천리순례 대중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월선원 만행결사로 시작된 봉은사 회주 자승 스님의 원력이 이번 순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화엄사 역시 최근 사사자삼층석탑 복원불사를 회향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는 만큼 인연이 지중하다. 화엄사와 순례단의 인연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치유와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덕문 스님도 “아름다운 가을의 한 가운데서 열린 화엄문화축제의 마지막날을 삼보사찰 천리순례단과 함께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 특히 사사자삼층석탑 복원 불사 후 첫 단체순례로 의미를 더한다”며 “순례단 전원이 부처님 근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건강하게 원만회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례 3일차인 이날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해 원력을 보냈다. 이원욱 정각회장은 “수행의 길을 걸으며 마음자리를 돌아봤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이 마치 국난과 같기에, 국민들을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며 “순례의 원력들이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면서 개인적으로도 국민통합에 대한 고민 속에 ‘화쟁의 가르침’을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화엄사에 당도해 각 각황전을 비롯한 전각들을 참배한 순례대중들은 오후 화엄문화축제의 마지막 행사인 화엄음악제에 함께한다. 화엄사 경내를 장엄한 괘불 앞에서 진행될 음악제는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극복을 염원하는 순례대중의 발원을 선율에 실어 널리 확산시키는 매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례=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

관련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순례, 가을과 함께 걷다
[천리순례] 마음으로 믿고 끌고, 천리걸음 가볍다
천리순례, 영취산 넘어 '부곡' 도착
[포교콘서트]1. 불교중흥 위한 포교전당 열렸다
[포교콘서트] 3. "역량 결집, 새 포교 방안 마련"

우중행선(雨中行禪), 걸음마다 환희만이...
천리순례단 경북서 경남으로... 지역 주민 응원 이어져
[천리순례] 함께 해서 고독하지 않은 수행의 길
[포교콘서트]2. 대중 소통의장 "불교 호감 높이자"

이시각추천뉴스

근현대 불교중흥 이끈 구하-한암 스님 조명
K-메타버서서 국보 반가사유상 만나볼까
문명사 속 불교와 역병의 관계는
"코로나 시대 禪, '사회적 마음챙김'에 주목을"
[포교콘서트] 3. "역량 결집, 새 포교 방안 마련"
[포교콘서트]1. 불교중흥 위한 포교전당 열렸다
[천리순례] 함께 해서 고독하지 않은 수행의 길

근현대 불교중흥 이끈 구하-한암 스님 조명

당신에게 추천하는 콘텐츠

AD

김완선 따라하고, 운동없이 허벅지 안쪽살 뺀 주부 화제

동국대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 내년도 신입생 모집

by

21세기 새 결사 '상월결사', 천리순례 입재

천리순례 전야, 각계 격려 응원 이어져

AD

주식할때 '3가지'기억하면 '큰돈'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 상월결사 순례단, 법보 가치 되새기다

<

>

기사댓글 1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 400

✓ 최신순 추천순 ●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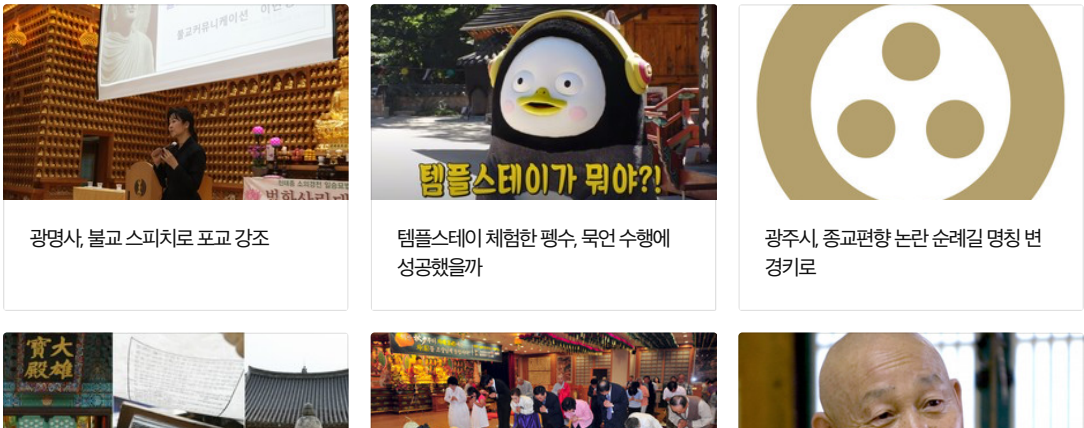
현불뉴스 2021-10-03 17:33:06

댓글 감사합니다.0. 덕분에 오류 수정했습니다

답글쓰기

2 2

주요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미리보는 삼보사찰, 함께가는 순례사찰



코로나에도 '추석차례'는 사찰에서



성파 스님, "종정 후보 추대 대중의 뜻에 따라"

현대불교

UPDATED. 2021-10-14 23:52 (목)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구독신청

불편신고

제보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곡로6길 36 (오피스텔월드) 606

대표전화 : 02)2004-8200 | 팩스 : 02)737-0698

법인명 : 현대불교신문사

등록번호 : 서울 아 00332 | 등록일 : 2007-03-09

발행·편집인 : 조혜도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주일



매체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현대불교신문. All rights reserved.